

손흥민, 가장 인상적인 활약 펼친 선수

갤럽 조사, 59%가 손흥민 꼽아
조규성·황희찬·이강인 뒤 이어

국민 10명 중 6명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를 손흥민(토트넘)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국내외를 통틀어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활약한 선수를 묻은 결과 59%가 손흥민을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은 응답자가 2명의 선수를 자유롭게 꼽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규성(20%·전북), 황희찬(19%·울버햄프턴), 이강인(18%·마요르카)이 손흥민의 뒤를 이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리오넬 메시(11%·아르헨티나), 킬리안 음바페(프랑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네이마르(브라질·이상 4%), 김민재(3%·나폴리), 백승호(전북), 김영권(울산·이상 1%), 황인범(울림피아코스), 야신 부누(모로코·이상 0.5%) 등 순이었다.

손흥민은 안와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도 월드컵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한국의 16강 진출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한국갤럽이 대회에 앞서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꼽혔다.

조규성은 이 조사에서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대회 조별리그 가나와 2차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깜짝 스타가 됐다.

황희찬은 포르투갈과 3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역전골을 넣었고, 이강인은 출전한 경기마다 활력을 보여줬으며 득점에 기여했다.

한편,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 생활이 더 즐거웠는지'를 묻는 문항에 71%가 '즐거웠다'고 응답했다. 17%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고, 12%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한국갤럽이 최근 올림픽 때 설문한 결과와 차이가 작지 않은 수치다.

같은 문항에 대해 2014 소치 올림픽 직후 67%가 즐거웠다고 답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 때는 즐거웠다고 답한 비율이 50%대에 머물렀다.

한국갤럽은 "월드컵 축구는 올림픽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2-1 승리 후 선수들이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선수들의 우루과이-가나전 시청 로이터, 월드컵 대회 10대 명장면 선정

한국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뒤 동그렇게 모여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휴대전화로 시청하는 모습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의 10대 장면에 뽑혔다.

로이터통신은 18일 올해 월드컵에서 나온 명장면 10선을 추려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 짓는 상황은 이 가운데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로이터통신은 "후반 추가 시간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역전 결승골이 들어간 것은 오히려 힘든 기다림의 시작이었다"며 "한국 선수들은 경기장 중앙에 모여 전화기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거의 10분 정도 시청해야 했다"고 당시 장면을 묘사했다.

한국은 이날 초 포르투갈과 H조 3차전에서 2-1 극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16강 진출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같은 시간 열린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에 따라 우루과이 또는 가나가 16강에 오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끝났을 때는 우루과

이가 2-0으로 이기고 있었고, 이대로 경기가 끝나거나 가나가 한 골만 더 넣어 2-1 우루과이 승리일 경우에만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었다.

한 골이 필요했던 우루과이가 필사적으로 가나를 몰아붙이며 아찔한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결국 우루과이의 2-0 승리로 경기가 끝나면서 한국은 16강 진출을 확정하고 드디어 마음껏 환호할 수 있었다.

골키퍼 김승규는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를 시청하던 때를 떠올리며 "정말 시간이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1초, 10초도 길었고, 우루과이 찬스가 생기면 우리 경기보다 더 떨렸다"고 털어놨다.

로이터가 소개한 맨 첫 장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를 2-1로 물리친 것이었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와 준결승에서 이번 대회에서 안면 보호대를 쓰고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상대 수비수 요슈수 그바르디올을 따돌리고 3-0을 만드는 골을 어시스트한 상황도 '10대 장면'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 폴란드 감독 후보 거론

한국 축구를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뒤 4년 동행을 마무리한 파울루 벤투(53·포르투갈) 감독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폴란드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현재에서 나왔다.

폴란드 뉴스포털 'WP Sportowefakty'은 15일(현지시간) "유명한 지도자가 폴란드와 함께 일하고 싶어한다. 이미 그는 폴란드축구협회(PZPN)의 후보에 올라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벤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다.

체스와프 미흐니에비치 현 폴란드 대표팀 감독

의 불확실한 운명으로 후임 감독 후보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벤투 전 감독이라는 것이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등이 포진한 폴란드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고, 프랑스와 16강전에서는 1-3으로 무기력하게 패했다.

폴란드축구협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미흐니에비치 감독으로부터 대회 보고를 받고 그의 거취를 논의했지만, 계약 연장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매체는 폴란드협회가 만약 미흐니에비치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으면 벤투 전 감독이 차기 대표팀 사령탑 1순위로 거론했다. /연합뉴스



미슬라브 오르시치가 18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모로코와 2022 카타르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선발 출전해 1-1로 팽팽하던 전반 42분 환상적인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모로코와 3·4위 결정전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열어

크로아티아에 월드컵 동메달을 안긴 것은 '키거 출신' 미슬라브 오르시치(자그레브)의 오른발이었다.

오르시치는 18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모로코와 2022 카타르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선발 출전해 1-1로 팽팽하던 전반 42분 환상적인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열었다.

마르코 리바야(스플리트)가 중앙에서 공을 넘겨주자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지체 없이 오른발로 감아차기 슈팅을 날렸다.

리바야가 패스했을 때 오르시치는 페널티 지역 왼쪽 라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오른발로는 슈팅에 힘을 실기가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오르시치가 오른쪽으로 몸을 확 꺾으며 강하게 때린 공은 예리하게 휘며 반대편 포스트를 맞고 골대 안으로 향했다.

이번 대회 최고 스타 중 하나인 모로코 골키퍼 야신 부누(세비아)도 손 쓸 도리가 없는 완벽한 슈팅이었다.

오르시치의 골 덕에 크로아티아는 2-1로 승리, 동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를 마쳤다.

1992년생인 오르시치는 2015~2018년 K리그 전남 드래곤즈와 울산 현대에서 '오르시'라는 등록명으로 뛰며 K리그 팬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선수다.

전남과 울산에서 101경기 28골 15도움을 올린 오르시치는 K리그에서의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2018년 5월 자국 최강 클럽인 디나모 자그레브 유니폼을 입으며 유럽 무대로 돌아갔다.

이후 2019년 크로아티아 국가대표로 A매치에도 데뷔했고, 결국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에도



2016년과 2017년 시즌 K리그 전남 드래곤즈에서 활약한 오르시치. /연합뉴스

들었다. 이번 대회에서 오르시치는 '조커'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조별리그 3차전 벨기에와 경기에서만 벤치를 지켰을 뿐, 1차전부터 브라질과 8강전까지 모두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오르시치의 활약은 그야말로 쓸쓸했다. 캐나다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4-1 승리에 췌기를 박는 골을 어시스트했다.

이번 대회 명승부 중 하나인 브라질전에서는 연장 후반 9분 교체 투입되고서 3분 만에 브루노 페트코비치(자그레브)의 1-1 동점골을 도와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러 숨 막히는 승부차기에서는 크로아티아의

네 번째 키커로 나서서 골대 왼쪽 구석에 깨끗하게 차 넣었다.

오르시치는 이미 유럽 프로 무대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8골 7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5골 1도움(예선 포함)을 올렸다.

여기에 자신의 첫 월드컵 무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오르시치를 향해 빅리그 팀들이 군침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를 두고 올 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아스널, 번리가 관심을 보인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터다. /연합뉴스

크로아티아 3위 '유종의 미' ... 모로코는 4위



루카 모드리치

3·4위전 크로아티아 2-1 승리
모드리치 아름다운 도전 마쳐
모로코, 아랍권 첫 4강에 만족

크로아티아가 '키거 출신' 미슬라브 오르시치(자그레브)의 결승골로 모로코를 제압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 3위에 올랐다.

크로아티아는 18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4위 결정전에서 전반 42분 터진 오르시치의 결승골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준우승한 크로아티아는 이로써 두 대회 연속으로 입상에 성공했다.

크로아티아는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총 3차례 메달을 따냈는데, 처음 출전한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모로코 앞세나갔다.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맞붙어 0-0으로 비긴 두 팀은 이번 대회 시작과 끝을 맞대결로 함께 했다.

2018년 발롱도르 수상자인 크로아티아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37·레알 마드리드)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월드컵 도전을 화려하게 마쳤다.

아프리카·아랍권 팀으로는 처음으로 4강에 오른데 사상 처음으로 아랍권 나라에서 열린 이번 대회의 '주인공'으로 활약한 모로코는 4위에 만족해야 했다.

이는 2002 한일 월드컵 때 한국과 더불어 유럽·남미 대륙 밖 나라의 월드컵 최고 성적이다.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비 유럽·남미 팀은 올해 모로코와 2002년의 한국, 그리고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대회의 미국이 있는데 우루과이 대회에서는 3·4위를 가리는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연합뉴스